

나주배·김·유자... 전남 농수산물 중동서 '인기몰이'

전남도, 두바이서 8개 품목 판촉 파프리카, 한국 최초 중동 시험수출 안테나숍 개설, 수출 전진기지 역할 "남도음식 신시장 개척 지원 확대"

나주배와 파프리카, 김, 유자 등 전남지역 대표 농수산물이 두바이 판촉 행사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중동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아랍 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지난 2일(현지 시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K-Fresh Zone)'에서 전남식품 판촉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슬람 문화권인 현지 수요를 감안해 전남의 대표 농수산물 중 배, 유자, 김, 김치, 파프리카, 고구마, 배추스, 두부스낵 등 총 8개 품목을 선정해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 최초로 두바이에 시험 수출됐다.

매장을 방문해 풍부한 과즙과 아삭한 식감의 나주배를 시식한 현지인들은 다른 현지 과일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과 파프리카, 유자주스, 두부스낵 등도 시식 행사를 통해 현지인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아랍 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서 열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K-Fresh Zone)에서 중동지역 수출확대를 위한 전남식품 판촉행사가 개최됐다. 전남도 제공

이슬람교 신자가 76%에 달하는 아랍 에미리트는 유티의 경우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산물과 해

조류 위주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국식품수출안테나숍은 두바이 현지에서 각종 수입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

급하는 팜프레시마켓에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부산의 누림트레이딩이 함께 개설했다. 한국식품의 중동지역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두바이 지사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현지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한국식품 수출 안테나숍이 두바이를 넘어 아랍권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는 전초기지로서 전남의 대표 특산물 배와 김, 김치, 유자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특정 국가에 집중됐던 농수산물 수출이 한류의 영향으로 점차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동에 부는 뜨거운 한류를 활용해 남도음식이 이슬람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도록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배는 두바이 현지 마켓을 대상으로 한 샘플 테스트에서 반응이 좋아 다수의 현지 식품마켓 입점이 결정돼 최근 수출 선적을 했다.

박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

광주시,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 추진

연말까지 4억6천만원 투입 수목 식재·휴식공간 조성

광주시가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생태계복원사업은 대규모 공사 때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방림근린공원은 무등산 생태축에 위치, 도심 내부의 생물서식처를 이어주는 산림형 생물서식처로 도심 생태네트워크의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면서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방치로 훼손이 심해 도심 내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이 저하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4억 6000만원을 투입해 방림근린공원 일대 1만2387㎡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복원사업은 수목식재를 통해 생물서식처를 복원하고, 생태놀이·체험·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해 총 10개 지역(25만 5000㎡)에 국비 90억 원을 확보,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했다. 나병춘 시 환경보전과장은 "도심 내 훼손·방치된 공간을 발굴,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의회,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삭감

민선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약 3분의 1이 삭감됐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2024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가 편성한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67억원 중 22억원(32.8%)을 삭감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4개 사업으로 영산강 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원), 송산 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원),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원) 등이다.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12억원)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12억원) 등은 국비 매칭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편성액 그대로 통과됐다. 김은지 기자

채은지, 박필순 의원 등 상임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3700억원대 대형사업에도 투자심사 절차를 건너뛰어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적 문제와 일부 체험, 물놀이 시설의 사업성 부족을 문제삼았다. 또 하상여과수(강바닥 지하 모래층 아래의 물) 개발공법을 통한 적정 유량(1일 10만톤) 확보 문제, 수질 개선과 취수 방안에 대한 부서 간 이견, 미흡한 용역보고서, 역대급 재정난도 지적받았다. 시의회는 오는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 의결한다. 한편, Y 프로젝트는 영산강 상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가뭄 때는 식수,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유수로 활용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378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광주 '미래차 선도도시' 기반 구축 속도 낸다

전자기적합성 평가기관 지정 그린카진흥원, 공신력 확보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전자기적합성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24일 국내 유일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개소에 이어 전자기적합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한 발 더 도약하게 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완성차 전자기적합성(전자파 유해간섭환경)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자기적합성 평가는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전자파에 의해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환경에 유해한 간섭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 분야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의 주행 및 충전 중 안정성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으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친환경자동차 전자기적합성 시험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장 20m 굴절버스의 시험도 가능한 실험실(챔버)을 갖추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전자파 발생 수신장치를 세 방향으로 상부에 매달아 조정이 가능하며, 바닥에는 노면과 동일한 주행 모의시험설비를 갖춰 차량의 자율주행센서 동작과 차량의 전자기적합성 시험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기적합성 전용 충전모의장치(시뮬레이터)를 연동해 국내·외 전기자

동차 충전 표준에 대한 충전 안전성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증 시설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타 지역에서 인증을 진행했던 지역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개발기간 단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완성차와 해당 부품까지 전 영역에서 전자기적합성 분야 신뢰성을 확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자동차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시가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전남도, 내년 어르신 9만6천여명에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1344억... 도, 2592억 투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에 각각 3만 2000여명과 6만4000여명의 어르신에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344억원을 투입,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5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3만 237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노노케어 등 공익활동형 사업 2만4054명 △노육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사업 4652명 △매장은 영 등 시장형 사업 2495명 △민간업체 취

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4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주민등록등본·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을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을 지급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76만1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별도 책정된다. 전남도도 '2024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적

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으로 사업비는 올해보다 548억원 증가한 총 2592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어르신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노병하·최황지 기자

QR code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nnam Ilbo (www.jnilbo.com).